

## 『承政院日記』醫案을 통해 살펴본 景宗의 奇疾에 대한 이해

김동율, 김남일,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A Study of King Kyung-jong's strange diseases according to Medical records fro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Dong-Ryul Kim, Namil Kim, Wung-Seok Cha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 this paper, King Kyung-Jong's strange diseases which had been exacerbated by the Sinim-Sahwa(辛壬士禍) are researched and discussed. The subject will be described mostly based on health and medical records from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承政院日記)』 and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Sinim-Sahwa had occurred for two years. It is thought that the beginning of it was 'a controversy on a proclamation of a crown prince, Yeon Ing Goon'. At the first year of Kyung-Jong's ruling, August 21, the No-Ron demanded a king's heir be decided as soon as possible, the king asked Yeon Ing Goon as his successor because of his 'strange diseases'.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e conflict between No-Ron and So-Ron parties reached its peak after a dispute about 'regency from behind the veil for the crown prince' at that time. Kyung-jong added that he had a mysterious and heavy disease and there was little hope to recover from it. Some opposing courtiers emphasized the king was in his good health and there weren't any actual diseases he suffered. But Kyung-Jong stubbornly persisted the diseases he had were so heavy that he couldn't get well readily. In detail, he announced his disease had so deeply rooted in internal organs that he could feel some kind of heat and fire arousal from his heart, then rage and resent soaring. Eventually, on 16th, the No-Ron party followed the king's demand, thus the king's health and illness condition itself was gradually getting off the subject.

It seems that Kyung-jong's strange diseases was hwa-byung(火病). His symptoms are similar to the symptoms of hwa-byung. Environment he lived, was enough to cause hwa-byung. as a result, Sinim-Sahwa was the event what his hwa(火) was erupted.

Key words : Medical records of King Kyung-jong,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Hwa-byung, Sinim-Sahwa, medicine of Chosun Dynasty, Royal Medicine

## I. 서론

조선의 20번째 왕 景宗은 조선 왕조 500년 중에 겨우 4년간 왕위를 지켰다. 짧은 재위기간만큼 눈에 띄는 치적도 많지 않고, 또 선왕인 肅宗과 뒤를 이은 英祖의 경우 40년 이상 재위하였기에 크게 부각되지 않는 왕이기도 하다. 특히 노론과 소론의 당쟁으로 얼룩진 시대적 상황은 경종의 행적에 대한 연구나 평가보다는 당대에 일어났던 당쟁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런데 당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경종의 재위기간에 한차례 거대한 세력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론이 지배적이던 정계가 소론으로 크게 뒤바뀐 사건, 바로 '辛壬士禍'이다. 辛丑년(1721)과 壬寅년(1722)에 걸쳐 발생한 본 사건은 경종이 즉위한 이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절정을 이룬 사건으로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론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경종을 옹호하던 소론이 정계를 집권한다.

본 사건과 경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허약하고 무기력한 왕이 당쟁에 휘말렸다

접수 ▶ 2013년 05월 10일 수정 ▶ 2013년 05월 27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2-964-3190 Fax : 02-965-5969 E-mail : chawung@khu.ac.kr

는 의견이다. 이는 병약하다고 알려진 경종의 육체적 어려움과 그가 대리청정 시기부터 정치에 과묵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안일한 자세라고 분석한 결과이다.<sup>1)</sup> 반면 다른 하나는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당시 일어났던 사회에 경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경종이 본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견해이다.<sup>2)</sup> 특히 본 관점에서는 대리청정 시기 경종이 과묵으로 일관했던 태도까지도 30년간 세자수업을 받아온 경종의 처세술로 보면서 전자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신임사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종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奇疾’이 있음을 언급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종이 언급한 이 ‘기질’은 노소간의 갈등의 핵심인 세제책봉과 관련된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종은 자신의 기질을 이유로 세제를 책봉하겠다 주장하고, 신하들은 기질이 없다, 혹은 기질이 큰 병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주장하여 왕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기질의 정체, 더 나아가 기질의 유무 여부가 왕과 신하 사이에서 ‘세제책봉’이라는 주제와 얽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신임사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경종의 기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그간 경종의 병력 혹은 건강과 관련되어 연구한 논문으로는 오갑균<sup>3)</sup>, 홍성봉<sup>4)</sup>, 김정선<sup>5)</sup>, 이해웅<sup>6)</sup> 등의 연구가 있었다. 오갑균의 논문의 경우 『朝鮮王朝實錄』, 『黨議通略』, 『大事編年』 등의 사료를 근간으로 경종의 생애를 연구하였으며, 홍성봉, 김정선, 이해웅 등의 경우는 왕조실록의 내용을 위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하였다. 또 단행본으로 김경수<sup>7)</sup>, 이상각<sup>8)</sup>, 이종호<sup>9)</sup>, 박시백<sup>10)</sup>, 김제방<sup>11)</sup> 등의 책에서 경종의 건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건강과 병력에 대한 내용은 위 논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필자는 『承政院日記』의 醫案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는 『승정원일기』에 나와 있는 의학기록이 기존의 왕실 의학기록연구의 중심을 이룬 『조선왕조실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자세하며, 무엇보다도 당시의 어투나 문투 등을 그대로 기록하여 편자의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되었기에 당시의 상황이나 화자의 감정 등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승정원일기』의 의안에 대해서는 홍세영<sup>12)</sup>, 강도현<sup>13)</sup>, 이상원<sup>14)</sup> 등의 연구가 있었다. 홍세영은 『승정원일기』 임상의학적 기록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강도현은 효종에 대해, 이상원은 현종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 연구 모두 왕조실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조선왕실의 다양한 의학 지식들과 왕의 건강에 대해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위해 논자는 우선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경종의 전 생애, 37년 병과기록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경종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는 ‘世子’, ‘元子’, ‘藥房’으로, 왕위 등극 이후에는 ‘藥房’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약방기록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당시기의 기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본다. 경종의 병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질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까지 포괄하여 그의 건강과 기질을 연계시켜 분석해보았다.

## II. 본론

### 1. 논쟁 과정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

경종의 기질은 『승정원일기』 약방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경종이 약방 문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1) 오갑균. 「경종의 生涯와 施政에 대한 일고찰」.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1977;13:191-205.

2)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파주:(주)글향아리. 2009;1-271.

3) 오갑균. op. cit.

4)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991;14(1):35-46.

5)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1-147.

6) 이해웅.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1-140.

7) 김경수. 『조선왕조사 전(傳)』. 파주:도서출판 수막새. 2007;1-420.

8) 이상각. 『조선왕조실록』. 파주:도서출판 들녘. 2009;1-592.

9) 이종호. op. cit.

10) 박시백.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서울:(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1-252.

11) 김제방. 『조선왕조사』. 서울:도서출판 문학공원. 2011;1-876.

12)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3)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4)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식으로 일관하거나 입진 자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기질에 대한 정보는 경종과 신하들 간의 논쟁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 1) 경종 원년(1721) 8월 연잉군 왕세제 임명 논쟁

경종의 기질은 경종 원년 8월 21일, 경종의 입을 통해 처음 등장한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의 즉위 이전부터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은 일명 소론의 왕인 경종이 즉위한 이래로 꾸준히 경종을 경계하였다. 그러던 원년 8월 20일, 노론은 경종에게 자식이 없음을 이유삼아 왕의 후계자를 세울 것을 주장한다.<sup>15)</sup> 노론은 이를 통해 왕의 유일한 혈족인 연잉군을 후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후사가 없었던 경종은 결국 이날 자신의 후계자로 연잉군을 지목한다.

그러나 연잉군은 후계자, 즉 왕세제가 되어 달라는 경종의 명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8월 21일 경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변변치 못하여 이미 30세가 지났는데도 아직껏 後嗣가 없으며, 또 기질마저 있으니 국사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sup>16)</sup>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경종에게는 ‘후사가 없고, 기질마저 있다’, 즉 후사가 없는 문제와는 별개로 기이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연잉군을 왕세제로 임명하겠다는 사실은 소론측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소론측 인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 중 유봉휘는 8월 23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중전을 재차 맞이하고도 약을 드시며 걱정하시고 계속 상중에 계시니 후사의 있고 없음을 아직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하의 나이 한창 젊으시고 중전께서도 나이 겨우 계년을 넘으셨으니 日後에 螽斯의 경사가 있기만을 온 나라 신민들은 크게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혹자는 兩宮께서 병환이 있어 誕育에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다면 보호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醫藥에 정성을 다하여 최대한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에 생각이 미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sup>17)</sup>

유봉휘의 언급을 통해 당시 경종의 건강과 관련된 제반 상황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경종은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 3년간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애초에 丁酉獨對<sup>18)</sup>를 통해 시작된 대리청정이었다. 즉 대리청정 자체가 경종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으며, 거기다 숙종의 병환 때문에 거의 매일 侍湯업무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숙종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자 한 국가의 임금의 죽음이었다. 후계자로서 상을 치루면서 해야 할 수많은 업무들과 무엇보다도 새로운 군주로서 해야 할 여러 책무들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이는 경종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에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재위 당시 경종의 건강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숙종이 승하한 시기는 1720년 6월인데, 당시 경종과 관련된 약방 기록에는 그가 계속 죽을 먹었다. 또 한창 濕熱이 성한 여름철인데, 평소 습열이 많은 경종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한다.<sup>19)</sup> 6월 26일 입진기사에 따르면 경종은 수년간 시탕업무를 하고, 紅疹도 겪었으며 아버지의 죽음까지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소론을 대표하여 유봉휘는 이제 의약으로 최대한 힘을 써서 몸을 치료하고 후사를 얻을 노력을 하는 것이 이치상 맞지 왕세제까지 임명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연잉군의 세제 즉위를 반대하는 소론측의 의견이 노론과 상반되는 가운데 경종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先大王께서는 日月같은 밝으심으로 나의 후사가 없음을 매우 염려하셨다. 이제 와서는 나의 병이 점점 더하여 得男할 희망이 없으니 삼가 부탁의 중함을 받들고자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지낼 겨를이 없었다.”<sup>21)</sup>

경종은 끝까지 자신에게 병이 있고 후사는 없다라는 이유로 연잉군을 왕세제 삼으려 한다. 이는 소론을 지지세력으로 하였던 경종이 노론의 요구를 수용한 꼴이다. 사실 일

15) 『경종실록』 「경종 1년 8월 20일」  
 16) 『경종실록』 「경종 1년 8월 21일」  
 17) 『경종실록』 「경종 1년 8월 23일」  
 18) 숙종이 노론측 대신 이이명과 단 둘이 대담을 나눈 사건, 훗날 영조시기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때 숙종이 이이명과 함께 세자를 교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 일 이후로 경종은 3년간의 대리청정을 시작한다.  
 19)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15일, “積年侍湯之餘, 遭此罔極之痛, 當時素有濕熱之症, 而又當蒸溽之節, 必致傷損, 臣等焦煎, 何可盡達?”  
 20)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26일, “殿下幾年侍湯, 焦煎中, 且重經紅疹, 又遭此罔極, 今雖不覺, 後自然損傷矣.”  
 21) 『경종실록』 「경종 1년 8월 23일」

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지난 즉위년 윤지술의 사건<sup>22)</sup>에서도 경종은 노론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다만 그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경종 스스로 자신이 병으로 인해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론의 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연잉군은 왕세제가 된다.

여기까지가 경종 원년 8월에 있었던 연잉군 왕세제 임명과 관련된 논쟁이다. 이 시기에는 경종의 기질에 대해 처음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기사를 통해서도 그의 기질이 어떤 종류의 병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경종이 즉위한 이래로 여전히 후사가 없었고, 즉위초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도 당시 경종의 건강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즉위 초인 즉위년 6월경부터 몸이 虛한 것을 걱정한 기사<sup>23)</sup> 이외에 원년 8월까지 경종의 질병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膝部疼痛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 뿐이다.<sup>24)</sup> 이를 통해 당시 경종이 정치적 논쟁에서는 기질을 언급하나, 약방 문안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경종 원년(1721) 10월 왕세제 대리청정 논쟁

원년 10월의 논쟁에서는 경종의 기질이 논쟁의 큰 화두로 나타난다. 동시에 그의 기질이 어떤 병인지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연잉군을 왕세제로 만든 노론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력을 키우고자 한다. 그리고 10월 10일, 노론은 경종에게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한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 한창 왕으로서 업무를 집행할 나이의 왕에게 대리청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왕권을 무시하는 처사와도 같았다. 경종의 반대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내던졌을 화두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에 경종은 의외의 답변을 한다.

“내가 기질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先朝의 軫念하시는 바였고, 萬機를 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에 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

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沈痼해지고, 酬應이 또한 어려워져 정사가 停滯됨이 많다. 이제 世弟는 젊고 英明하므로, 만약 聽政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大小의 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裁斷하게 하라.”<sup>25)</sup>

놀랍게도 경종은 대리청정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경종의 발언이 허약한 왕의 무기력함이나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었느냐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 노론은 예상 밖의 처신을 해야만 했다. 대리청정을 제안한 노론이지만 왕이 이렇게 적극적이면 본인들도 신하된 도리로써 대리청정을 다시 반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소론과 노론 모두 대리청정에 반대하게 된다. 그리고 경종이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삼아 대리청정을 적극 수용코자 하였기에 신하들 역시 그의 건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냄으로서 대리청정을 반대한다.

본 기사에서 경종은 다시금 자신의 기질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자신에게 ① 십여 년간 기질이 있었으며, ② 등극한 이후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경종의 기질 발병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종의 세자시기 기록까지 포함하여 승정원일기 약방 기사를 살펴보아도 경종의 이 기이한 질병에 대해 언급 혹은 토론된 적은 없었다.

이후 이 기질에 대해서 신하들과 경종 사이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우선 경종이 대리청정을 수용한 당일 노론측 인물인 이기익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先王께서 臨御하신 지 40여 년에 여러 해 동안 편찮으셨고 또 안질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代理의 명을 내리셨던 것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機務가 정제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成命을 도로 거두소서.”<sup>26)</sup>

앞서 경종은 숙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을 통해 3년간

22) 윤지술이 『家禮源流』 서문에서 희빈을 사사한 사건을 가법계 다른 것에 대해 상소를 올려 부당하다 하여 경종의 미움을 사는 행동을 했으나 노론의 힘에 못이겨 결국 그에게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음

23)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15일,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26일 외

24)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월 8일,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5월 2일,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8월 13일 외

25)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0일」

26)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0일」

대리청정 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기익의 말에 따르면 당시 숙종은 이미 나이도 많았고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리청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지금 경종의 상황은 그와 다르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시기 기사를 살펴봐도 정유독대가 있었던 숙종 43년부터 그가 죽은 숙종 46년까지 약방에서 거의 매일 왕의 안위를 살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sup>27)</sup> 반면 경종은 세자 때보다는 더 잦은 병 치레를 겪기는 했으나 실제 병마와 씨름을 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다.<sup>28)</sup> 즉위 이후 경종의 약방 진료기록을 정리한 표(표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심각한 병고에 시달렸다고 볼 수는 없다.

표 1. 경종 즉위년~원년 약방에서 언급된 경종의 질환

해당 년도	경종 나이	승정원일기 기재 기간	질환(증상)명
1720 (경종즉위년)	14	06/15~07/23	虛症
		09/07~10/04	虛症
		12/15	嘔吐
1721 (경종원년)	15	01/08	膝部疼痛
		05/02~05/17	膝部疼痛
		08/12~08/21	膝部疼痛
		08/28~09/03	咳嗽
		12/14~01/21	咳嗽

뒤이어 소론측 인사인 최석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로부터 帝王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人主의 春秋가 아주 많거나 혹은 在位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피로가 병이 되었거나 혹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여러 해 沈痼한 나머지 만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겨우 30이시고 재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병환 때문이라면 신이 藥院에 있어서 매양 問安에 대한 批旨를 보건대, ‘無事하다.’고 하교하셨고, 이른바 편찮으신 증세라는 것은 痰火引飲과 小便이 잦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침고한 병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일이 없는데도 즉위 원년에 갑자기 이런 하교를 내리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중략... 전하께서 질병이 선왕과 같으시고 춘추가 선왕과 같으시다면,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한창인 나이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신데도 이런 일을 하시니, 신 등이 근심하고 황급하여 罔極해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成命을 거두소서.”<sup>29)</sup>

27)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월 1일 ~ 숙종 43년 6월 8일

28) 김동윤, 김태우, 차웅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 I」. 한국의사학회지. 2012;25(1):11-22.

29)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0일」

30)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6월 ~ 경종 원년 10월

31)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1일」

32)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여기서 최석항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은 바로 그동안 약방 문안에 경종이 지냈던 태도였다. 실제 승정원일기 약방 문안 기사들을 살펴보아도 당시에 경종의 문안인사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무사하다 혹은 평온하다였다.<sup>30)</sup> 또 하나 최석항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종이 痰火引飲과 小便頻數 정도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었으나 기질이라 칭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앞선 이기익과 입장은 다르나 비슷한 논조로 대리청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하였다.

다음날 소론측 대신 이광좌 역시 경종의 의견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한다.

“...전하께서 하늘의 큰 命을 받으시고 祖宗의 부탁을 받들었으며 춘추가 三紀에 차지 아니하시어 精力이 바야흐로 왕성하신데, 이같은 하교를 어찌하여 갑자기 내리십니까? 비록 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드러난 증세가 없으며, 上下를 물론하고 설사 이상한 병이 있을지라도 藥餌를 부지런히 써서 마침내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임금의 한 몸은 스스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한 가지 병 때문에 國務을 놓거나 조그만 수고 때문에 한적함을 즐기고자 한다면 세상에 어찌 臨御할 임금이 있겠습니까?”<sup>31)</sup>

여기서도 경종의 기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경종이 병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드러난 증세가 없다는 점이다. 즉 경종의 기질이 형태가 눈에 두드러지는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광좌는 경종이 한창 정력이 왕성할 때임을 강조한다.

이틀 뒤 경종은 다시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나의 病根이 날로 점점 더하여 나올 기약이 없으니, 일찍 儲嗣를 정한 것은 실로 代理를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이를 慈聖께 稟한 지 오래 되었으나, 冊禮를 이제 막 거쳤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중략)... 公事は 적체되고 酬應이 절박하니, 일체 그저께의 비망기에 의해 거행하여 調攝하는 방도를 온전하게 하라.”<sup>32)</sup>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경종은 자신의 병이 나을 기약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연이어 대신들과 경종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다. 노론측 4대신 중 한 사람인 김창집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하께서는 비록 병환이 오래 되어 酬應이 어렵다고 하교하시지만, 전하의 英睿하심으로 鍊習하고 裁處하시는 즘에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神氣가 조금 피로할 때를 당하면 줄곧 근로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혹 편리한 대로 편하게 쉬시어 수양하는 방법으로 삼으신다면, 조금도 방해될 바가 없습니다. ...(중략)... 죽음이 있을 뿐이며 결단코 奉行할 수 없습니다. 내리신 비망기를 삼가 繳還합니다.”<sup>33)</sup>

이에 경종은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내 병은 전후의 批答에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만약 지금 치료하지 아니한다면 진실로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 것이며, 또 代理는 바로 祖宗朝의 故事인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는가? 경등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sup>34)</sup>

이에 삼사(三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神氣가 왕성하십니다. 비록 병환 때문이라고 하교하시지만, 이미 드러난 증세가 없으니 마땅히 더욱 奮勵를 더하시고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약하시어 先王의 부탁하신 뜻에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sup>35)</sup>

이 외에도 여러 신하들이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경종의 의사에 반대한다. 경종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신하들이 반대하는 내용 역시 이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경종의 기질에 대해서는 드러난 증세가 없는 모종의 병이라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신하들의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자 드디어 경종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病根이 內臟을 손상시키고 心火가 점점 불어나 火熱이 오르내리는 즘에 정신이 아득하고 어두워 깨닫고 살피지 못하여 倦怠가 이와 같으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지금 國本은 이미 정해졌고 나의 화열은 점점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억지

로 행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며, 조섭하고 치료하는 데 뜻을 전적으로 기울이면 公務에 방해됨이 있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世弟로 하여금 근심을 나누게 하는 것 외에 다시 다른 도리가 없다. 이는 내 한 몸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경 등은 나를 사랑하여 생각해 보라.”<sup>36)</sup>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겠다는 경종의 의지와 함께 경종이 그동안 설명했던 기질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경종이 설명한 자신의 기질이란 다음과 같다. 증상으로 본다면 병이 발동할 때 정신이 아득하고 어두워 판단력이 손실되는 질환이며, 원인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병의 요소가 자신의 內臟을 손상시켜 心臟의 火가 불어나 火熱의 승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종의 기질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즉위년 9월 입진 기사 중에 경종이 평소애 화가 상승하는 증후가 많다<sup>37)</sup>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반대의견은 끊이지 않는다. 왕세제인 연잉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하께서 춘추가 한창하시니, 바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할 날입니다. 비록 편찮으신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神明이 도우시니, 약을 쓰지 않고도 회복됨에 이를 것인데, 갑자기 막중하고도 막대한 일을 신과 같이 不肖한 자에게 더하려고 하시니, 신은 이미 학문이 어둡고 지식도 없으면서 어찌 감히 만분의 일이라도 받들어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sup>38)</sup>

즉 경종이 자신의 기질에 대해 정신이 아득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자, 정신을 가다듬을 시기이며 또 잘 회복될 것임을 누차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는 이후에 부소군 외 32명의 신하들이 올린 상소에서도 잘 드러난다.<sup>39)</sup> 그러나 경종은 여전히 자신의 병이 깊다는 의견으로 일관한다.<sup>40)</sup>

그 이틀 뒤, 약방에서 입진을 요청하는데 경종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33)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34)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35)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36)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37)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9월 7일, “自上素多火升之候, 不知若何? 上曰, 姑無火升之事矣.”

38)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39)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40)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3일」

“病根은 단지 한때의 증세가 아니다. 만약 나의 소원에 따라 안심하고 調治하면 혹 조금이나마 효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여 밤낮 근로한다면 비록 기묘한 약이 있다 해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 약을 쓰지 아니하고도 병이 나을 방법이 있는데, 경 등은 입에 쓴 약을 시험하려고 하니,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꾀히 내 소원을 따르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만전의 길이다. 入診하여 의약하지 말라.”<sup>41)</sup>

그동안 그렇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던 경종이 막상 의사들의 입장을 거절한다. 약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좀 쉬게 해주면 해결이 될 것인데 어찌하여 약을 쓰기 위해 입진하려 하는 것인가라는 뜻이다. 경종이 의약을 사용하지 않길 원하지 않는 사실이 그의 본심이나 아니면 대리청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이냐는 분석하기 나름이겠다. 하지만 적어도 경종이 병의 치료에 있어서 쉬를 통해 해당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도 연잉군은 자신이 이 명을 따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경종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병세를 안다면 자기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면 대리청정을 요청한다.

“어제 批旨 가운데 간절한 속마음을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 그대도 이미 나의 병세를 알 것인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는가? 나의 뜻이 굳게 정해졌으니, 결단코 윤택해 따를 수 없다.”<sup>42)</sup>

“형제간에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義를 깊이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병중에 수양하고 補身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다. 또 내 뜻이 굳게 정해졌으니 비록 날마다 열 차례 상소할지라도 윤택해 따를 이치가 만무하다. 다시 번거롭게 전달하지 말아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sup>43)</sup>

여기까지 경종이 자신의 기질에 대해 가져온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병은 정사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의 병이다.’, ‘이 병은 의약으로 접근할 병이 아니라 쉬를 통해 치료할 병이다.’, ‘대리청정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 병이 업무에서 벗어나 조양할 수 있을 때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종은 이를 근거로 신하들의 요청을 계속 거절한다.

그러자 이제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인 김창집이 신하들

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요기 생각하건대 火熱이 치솟아 오르는 증세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접하여 답답함을 소통시키고 편 뒤에야 화열이 내리고 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萬機가 비록 번거로울지라도 순리로 應接하면 바로 鬱火를 소통하고 조절해 퍼는 방법에 꼭 합당한 것인데, 무슨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어서 이와 같은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리십니까?”

이는 이를 전 왕이 직접 설명한 자신의 기질과 그 치료법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김창집은 화열이 오르는 왕의 증세는 울화를 소통시키고 조절해야 해소가 될 것인데 그 방법은 사람들과 만나서 답답함을 소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업무에서 멀어져 조양을 하는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의 의견은 울체된 화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경종의 현 상황과는 맞지 않은 치료법을 주장한다. 경종에게 있어서 신하들과 접하고 국무를 담당하는 일이 곧 화가 쌓이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번거로운 정무를 나누어서 병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興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궁궐을 지키며 나의 못 民生으로 하여금 물 끓는 솥처럼 만들었으니, 이 무슨 景像인가? 또 내 병세가 조금 나오면 다시 庶政을 직접 맡는 것이 어렵지 않다. 경 등은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sup>44)</sup>

경종은 김창집의 말처럼 왕의 책무를 감당하면서 소통을 통해 울화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한다. 김창집의 주장은 곧 화를 울체되게 만드는 상황을 유지하므로써 울체된 화를 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창집과 경종의 대화를 보면, 경종의 기질에 대해 좀더 분명한 견지를 가질 수 있다. 앞서 경종은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기이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열이 위로 올라 정신이 아득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질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곧 내장 깊숙히 병의 뿌리가 자리 잡아 심화가 불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 신하들의 말을 통해 이 질환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증상이 아니라

41)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42)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43)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44)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드러나지 않는 질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금 전 김창집과 경종의 대화를 보면 경종의 증상이 인체 내부에 화가 울체되어 발생하였고, 이 병을 돋우는 원인이 곧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국무임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대리청정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된다. 승정원에서는

“비록 병환이 沈痼하다 하시지만, 드러난 증세가 대단한 데 이르지 않았고, 酬應도 庶務를 적체시키지 않았습니다.”<sup>45)</sup>

이라 하였으며, 삼사에서는

“전하의 症候에 대해 醫員으로 하여금 그 의술을 다해 치료하게 한다면, 저절로 점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로운 사이에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더욱 힘쓰시어 優游涵養 하여 志氣가 淸明해진다면, 잠시 오르내리는 火氣가 어찌 깊이 우려하는 데 이르겠습니까?”<sup>46)</sup>

이라 하였다.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친다. 우선 소론 4대신 중 한명인 조태구는

“성상께서는 비록,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우애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다.’고 하고하시지만, 한때의 병환으로 萬機를 가볍게 포기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sup>47)</sup>

이라 하였다. 사직 권규 등 30명은

“...전하께서는 비록 병이 있다고 하시지만 전하께 병환이 없음을 臣民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나의 本意라고 하시지만 전하의 본의가 아님을 신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sup>48)</sup>

이라 하였으며, 대신들이 또다시

“설령 전하께 참으로 이상한 병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더욱이 전하께서는起居가 예스럽고 神明이 감쇠됨이 없으며 臣僚를 접하고 사무에 응하시는 데에도 구애되는 바가 없으시니, 오늘날의 擧措는 과

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鬱火란 예사 병환으로 마침내 정무를 놓으시고 한적함을 즐기려 하시기에 이르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sup>49)</sup>

이라 하였다.

모두 경종의 병이 가벼운 병이다. 병이 무겁다한들 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옳다. 경종이 건강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통해 대리청정에 대해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 특히 鬱火와 같이 범상한 질병으로 정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내용까지 덧붙인다. 경종이 자신의 기질에 대해 설명한 이후로 김창집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까지 모두 그의 기질을 율화와 연관시켜 보고 있다.

다음날인 16일, 경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병세가 만약 酬應할 수 있으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근래에 火症이 점점 치밀어 올라 깨닫고 살피지 못하며, 하루에도 자주 나타나 장차 좌우로 하여금 前例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sup>50)</sup>

이날의 언급을 기점으로 노론과 소론의 의견이 갈린다. 노론은 이제 왕의 뜻을 따르자고 하며, 소론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한다. 결국 양측의 의견이 이와 같이 갈리면서 대리청정에 대한 경종의 기질과 관련된 논쟁은 마무리가 된다.

다만 여기서 소론을 대표해 이광좌가 한 말이 자못 의미가 있다.

“성상의 비답에 비록, ‘火氣가 치밀어 올라 깨닫고 살피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나, 지금 批答가 이처럼 자세하고 극진하니, 깨닫고 살피지 못하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비록 달은 지나고 해를 넘길지라도 人臣의 分義로서 청을 허락받지 못하면 마땅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 등은 도리어 오늘 의논을 그만두려고 하니, 百代 후에 공 등을 능히 신하의 節義를 다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sup>51)</sup>

그동안 경종은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자신의 기

45)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46)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4일」  
47)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5일」  
48)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5일」  
49)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5일」  
50)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6일」  
51)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6일」



질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광좌의 말처럼 경종이 대리청정의 논의가 있는 이 기간 내린 비답들을 보면 판단력이 흐린 사람마냥 신하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집만 피우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았다. 도리어 신하들의 의견에 대해 적절한 순간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를 이광좌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경종이 말한 기질이 무엇이나 혹은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느냐를 떠나 이광좌가 노론과 소론의 의견이 갈라지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소론이 경종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한발 더 앞장섰음을 보여준다.

대리청정에 대해 논의하던 10월, 경종의 건강과 관련된 마지막 기사는 17일에 소론측 인사인 조태구의 발언에서 보인다.

“전하께서는 비록 火熱이 오르내림 때문에 機務를 사양하려고 하시지만, 화열이 오를 때는 잠시 재결을 정지하시고 화열이 내려 마음이 안정되고 뜻이 평탄해지기를 기다리신다면, 저절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져 뜻과 생각이 맑고 밝을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일이 닳치는 대로 순조롭게 응하신다면 사무에 적체됨이 없어 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일이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sup>52)</sup>

앞서 김창집이 내린 치료법과 비교해보면, 노론측 인사인 김창집은 신하들과 대면하여 화가 울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조태구는 화열이 오를 때마다 안정을 찾고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다. 양쪽 모두 火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김창집은 업무가 경종에게 주는 부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드리게끔 하고 있으며 조태구는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쉽을 통해, 또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통해 화를 다스리게끔 말한 것이다. 노론측 대표와 소론측 대표가 모두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듯 보이나 그 속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날, 경종은 마치 노론과 소론의 의견이 양분되기를 기다리더라도 한 것처럼 그동안의 굳건한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소론의 편을 들어 준다.

이상 경종 원년 10월에 있었던 대리청정의 논쟁을 살펴 보았다. 왕세제 논쟁이 있었던 8월보다 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종이 말하던 기질이 어떤 증상을

설명하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논쟁의 큰 틀은 자신의 기질 때문에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경종, 처음에는 자신들 편에서 대리청정을 제시했지만 경종의 태도에 당혹스러워 이를 반대해야했던 노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청정을 반대한 소론과 연잉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종의 기질에 대해서도 비교적 다양한 정보들이 나왔다. 특히 그의 병이 화가 상승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체 내에 화가 울체되어 있다든지, 또 발병한지 오래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정보는 그의 기질이 어떤 성격의 병인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경종 원년(1721) 12월 김일경의 상소, 경종 2년(1722) 3월 목호룡의 고변

세제 대리청정 논쟁은 결국 대리청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마지막까지 대리청정을 반대했던 소론이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김일경의 상소<sup>53)</sup>, 목호룡의 고변<sup>54)</sup> 등을 통해 소론은 정권을 잡고, 반대로 노론은 대거 화를 입는다.

상기 두 사건의 경우, 신임사화와 관련된 정치적 파급력은 높다할 수 있겠으나 경종의 기질 혹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경종의 건강에 대해 참고할만한 언급들이 나온다. 우선 원년 12월 6일 김일경의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원년에 寶算이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십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를 복종해 섬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차마 전하를 버리려는 자가 있으니, 저들의 마음이 편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sup>55)</sup>

경종에게 드러난 병환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未有形顯之疾’이라 기록되어 있다. 드러난 병환이 없다는 말은 지난 10월 세제의 대리청정 논쟁 때부터 등장했던 표현이다. 병환이 없다든지, 병환이 미약하다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드러난 병환이 없다고 일컫는 것은 드러나

52)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7일」

53) 원년 12월, 김일경이 노론 사대신을 四凶이라 칭하며 그들의 처벌을 주장함

54) 2년 3월, 목호룡이 노론을 중심으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고함

55) 『경종실록』 「경종 1년 12월 6일」

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표현으로 보인다.

목호룡의 고변 당시에는 경종의 건강에 대해 특별히 언급된 기사가 없다. 다만 목호룡의 고변이 있고 수일 후, 약방 입진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藥房에서 入診하였다. 입진이 끝나자 都承旨 金始煥이 公事를 가지고 나아가 읽었는데 잠시 후에 입금의 火熱이 갑자기 오르고 心氣가 폭발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놀라 두려워하며 물러갔다.”<sup>56)</sup>

내용인 즉, 경종이 화열로 심기가 폭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하들이 물러갔다는 말이다. 동일한 날 『승정원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증세를 호소하였다는 기사는 없다. 다만, 도제조 김시환이 더운 날씨에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 피곤하실 것 같으니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입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몇 차례 반복한 후 물러났다는 기사가 남아 있다.<sup>57)</sup> 『승정원일기』에 심기가 폭발한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 않아 아쉽지만 어쨌든 왕조실록 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이러한 증상은 그동안 언급된 기질과 유관해 보인다.

## 2. 경종 기질에 대한 분석

현재까지 경종의 기질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병은 십여 년 전부터 있던 병이었다. 경종이 후사가 없었던 것과 비견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병인데, 후사가 없는 것에 비해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 이는 이 병의 증세가 왕위 등극 이후에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20대부터 후사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었지만 기질의 경우 그 증세가 왕위 등극 이후인 30대에 심해졌기 때문에 그전부터 고려되었던 질환은 아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종 본인도 그간의 문안인사에서 대부분 무사하다 혹은 평온하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을 정도도, 문제 삼기도 어려웠다. 경종이 즉위 직전까지 여러 이유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웠다는 점과 즉위 이후 여러 업무, 특히 노론이 주를 이룬 정계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 등은 그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이며 이런 상황들이 기질의 촉발인자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종이 말한 기질의 증상은 정신이 아득하고 어두워 판단력이 손실되는 질환이다. 이 증상은 항상 발동해있는 것은 아니나 한번 발동을 하면 정사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종을 힘들게 하였다. 또 눈에 드러나는 증세도 없는 질환이다. 이 병의 원인에 대해 경종은 어떤 병의 원인이 자신의 내장을 손상시켜 심장의 화가 붙어나 화열의 승강을 조절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상기 증세에 대해 다수의 신하들은 율화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 경종이 평소애 화가 상승하는 증후가 많다는 기록도 그의 증상이 ‘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병 치료에 대해서 경종은 직무를 쉬면서 조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신하들은 직무를 하시되 필요에 따라 쉬는 시간을 두시라고 하는 편이다. 노론측에서는 더 나아가 신하들과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함으로써 율체된 화를 소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종은 이 병을 의약으로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씬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경종은 의관들에게 자신의 기질에 대해 진단받기를 꺼려했다. 더 나아가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길 거절했다. 실제로 승정원일기 경종 입진 기록에서 경종이 논쟁에서 언급한 본인의 기질 증상을 의관에게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여러 대신들이 경종의 병에 대해 율화라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약방의 입진기사를 보면 의관이 아니더라도 함께 입진한 신하들이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경종의 병에 대해 율화를 처음 언급한 김창집의 경우 약방 도제조로도 활동하였다. 즉 경종의 기질은 율화와 관련된 병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율화와 관련된 한방정신과적 질환으로는 火病이 대표적이다. 화병은 鬱火病으로 불리기도 하는 한국 특유의 민속 증후군인데<sup>58)</sup> 왕조실록에도 화병과 관련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sup>59)</sup> 왕실기록에서 경종의 질환을 화병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오늘날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는 화병이라는 용어가 의학적 용어로 정확히 쓰이지 않았으며, 한국 민간에서 쓰이는 질환명이었기에<sup>60)</sup> 경종의 기질은 화병이라는 식의 표현은 없었던 것

56) 『경종실록』 「경종 2년 3월 17일」

57) 『승정원일기』 경종 2년 3월 17일, “諸醫入診及公事奏達之際, 時暑屢移, 殿坐此久, 玉體實有疲勞之慮, 臣等姑爲少退.”

58) 이회영, 김중우, 박종훈, 황의완. 「화병 진단 및 변증유형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5;16(1):1-17.

59) 김중우, 현경철, 황의완. 「화병의 기원에 대한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10(1):208-219.

으로 보인다.

화병은 분노와 같은 감정과 연관되고 그 감정을 풀지 못하는 시기가 있으며 火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병으로 정의된다.<sup>61)</sup> 화는 情志가 失調되어 울체됨이 오래 되어 발생하는데, 미국정신학회에서는 화병을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sup>62)</sup> 그런데 경종이 겪었던 개인적, 정치적 상황들과 그에 대한 경종의 대응들을 보면 경종에게 火病이 생길만한 이유가 다분해 보인다.

우선 경종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의해 어머니를 여의었다. 당시 숙종이 장씨의 사사를 명하자 많은 신하들이 세자였던 경종의 안위를 걱정했다. 9월 28일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신하들은 세자가 驚痛으로 손상되는 바가 있으니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또한 왕조실록 10월 1일 기사에도 세자가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를 간청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병이라도 생기면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장씨의 자진을 돌이켜달라는 신하들의 요청을 볼 수 있다.<sup>64)</sup>

당시 경종의 상태를 보면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었으며,<sup>65)</sup> 희빈이 자진한 날 경종에게 紅斑이 생겼다.<sup>66)</sup> 이때 의관들은 경종이 足陽明胃經에 風熱이 鬱滯되었다고 진단했으며, 淸肌散으로 치료하였다. 청기산은 癩疹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은진으로 인해 붉거나 희며 가려울 때 사용한다.<sup>67)</sup> 동의보감에서는 은진의 원인을 대부분 脾에 있다고 하였으며<sup>68)</sup> 『동의보감』에 足陽明脈에 이상이 있어 병이 들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답답해하는데 답답하다는 것은 열이 속에 쌓인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sup>69)</sup> 또 脾에 근심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意가 상하는데 意가 상하면 곧 번민하고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sup>70)</sup> 결국 어머니의 죽음은 경종에게 熱이 쌓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도 경종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정치권의 주 세력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결국 아버지마저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대리청정을 통해 세자로서의 지위마저도 흔들릴 위협 속에 살았다. 그리고 대리청정 때 보여준 경종의 태도를 보면 그는 말 수를 줄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지냈다. 주변의 위협과 그에 대해 침묵의 방법으로 안위를 지켜왔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즉위 이후 신임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도 반복되었다. 경종실록 1년 12월 6일, 김일경의 상소이후 실록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恭默하여 말이 없고 조용히 高拱하여서 臣僚를 引接하여 더불어 수작하지 아니하고 群下의 陳稟을 문득 모두 허락하니, 凶黨이 업신여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의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질병이 있는가 염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하룻밤 사이에 乾斷을 크게 휘둘러 群凶을 물리쳐 내치고 士類를 올려 쓰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므로, 군하가 비로소 주상이 숨은 덕을 韜晦함을 알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당일의 일은 대개 말하기 어렵다. 물리쳐 내치고 올려 쓰는 것이 천둥처럼 엄하고 바람처럼 빨랐음은 진실로 史臣의 말과 같다.”<sup>71)</sup>

그동안 경종이 공무를 진행함에 말수를 줄이고 신하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편이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이는 후대 연구자에게 경종이 실어증에 있지 않다는 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을 정도이다.<sup>72)</sup> 경종은 이처럼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삭히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가 감정이나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에게 화를 쌓는 방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60) 김종우, 현경철, 황의완. op. cit.

61) 임현주, 김석환, 이상룡, 정인철. 「화병변증도구 개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22(5):1071-1077.

62) 안태한, 장정아, 박은영, 정성식, 김진원, 서호석 외. 「폭식을 주소로 한 화병환자 치험1례」. 대한한의학회지. 2011;32(5):139-146.

63)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9월 28일, “第群下區區之念, 世子驚痛傷損, 勢所必至, 故以此爲慮, 惟望自上十分參量而處之, 下詢之舉, 似不必爲之矣”

64) 『숙종실록』 27년 10월 1일, “왕세자가 이제 막 망극한 슬픔을 당하고 또 비상한 번고를 만났는데,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려 해도 변해(辨解)할 말이 없고 은혜로 용서해 주기를 빌고자 해도 왕명이 지엄(至嚴)한지라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니, 정리가 궁박(窮迫)하여 답답한 심사가 병이 된다면, 우려(憂慮)되는 바가 어찌 국가와 관계되지 아니하겠습니까?”

65)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8일, “藥房, 王世子入診後, 口傳啓曰, 入診諸醫等以爲, 脈度虛數, 而不至大段, 寢睡頓轉, 比前頗減, 姑無用藥之事云矣, 敢啓”

66)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0일, “自昨夕背腹部, 多發紅斑, 時覺搔癢, 而四肢稀少,”

67) 『동의보감』 「淸肌散」 “治癩疹, 或赤或白, 瘙痒.”

68) 『동의보감』 「癩疹」 “癩疹多屬脾, 隱隱然在皮膚之間, 故言癩疹也”

69) 『동의보감』 「惡人欲獨處」 “內經曰, 足陽明之脈, 是動則病, 惡人與火, 欲獨閉戶隔而處. 少陰之虛, 亦欲獨閉戶隔而處. 又曰, 陽明厥, 則喘而惋, 惋則惡人. 釋曰, 惋謂熱內鬱而煩也.”

70) 『동의보감』 「神統七情傷則爲病」 “脾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愧亂”

71) 『경종실록』 「경종 1년 12월 6일」

72) 이종호. op. cit.

그 외에도 경종이 표현한 증상을 오늘날 화병의 변증지표<sup>73)</sup>와 비교해보면 몇몇 증세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종이 답답함을 느끼고 감정이나 의지가 억눌려 있는 점, 화가 오르면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가 되는 점 등이 그렇다.

### Ⅲ. 고찰

경종은 종종 정신병이 있는 왕으로 평가받는다. 오갑균은 『대사편년』에서 ‘경종이 시간이 있으면 벽을 향하여 앉아 사람과 수답하는 것처럼 작은 말로 중얼거리고, 밤중에 계정간을 방황하며 기거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경종에게 정신병적 행동 혹은 병리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sup>74)</sup> 이종호는 그의 저서에서 이성무의 『조선시대 당쟁사 2』에 인용된 『단암만록』의 내용에 의거하여 경종이 속옷 차림으로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신하들을 인견하고, 숙종 승하시 울지는 않고 까닭 없이 웃었으며, 특히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었다고 한 기록을 들어 경종에게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하였으며, 또 경종이 조정에 대하는 태도에서 주로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그에게 실어증이 있다고 평가하였다.<sup>75)</sup>

한편, 원년 10월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로 논쟁이 치열하던 막바지에 실록 사관이 기록한 경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비록 조회에 임하여 침묵하고 聽斷에 권태로움을 느낄 지라도 起居動作이 常도가 있고 朝享을 폐한 적이 없으며, 비록 혹시 火氣가 올라 譫迷함이 있을지라도 群下가 아뢰는 일에 대한 酬答이 어긋나지 아니하여 순종·광종 두 임금처럼 말을 못하거나 執喪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신으로서 비록 충성스러움이 두황상·조여우와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정무를 놓는 일을 즉위 元年에 갑자기 의논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sup>76)</sup>

경종에게 『대사편년』이나 『단암만록』 등에서 묘사한 정

신적 문제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도 그가 이처럼 이상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았던 약방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sup>77)</sup> 승정원일기 약방의 기록과 경종의 건강에 대한 왕조실록 기록에서 경종의 정신적 질환으로 설명해볼만한 질병으로는 오직 그가 기질이라고 설명했던 울화가 있을 뿐이다. 즉, 심각한 정신병으로 이상행동을 하면서 충신들을 내쫓은 왕으로 보기에는 논쟁 중에 보여준 그의 언변이나 실록 저자의 평가, 승정원일기의 약방 기록 등은 일치하지 않는다.

원년 10월, 김일경의 상소 이후 경종은 노론 대신들에 대한 처벌을 단호하게 집행하였다. 또 12월 17일이 되면 윤지술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윤지술은 약 1년 전 경종 즉위 초반에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학자였다. 경종은 그의 주장에서 현 왕에 대한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당시 주세력이었던 노론측 인물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노론측 인사들을 유배시키자 윤지술에 대한 형벌도 집행하였다. 그리고 목호룡의 고변 이후로 더 단호한 결정을 통해 노론측 인사들을 정계에서 제거시켰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임사화가 경종 2년 3월 이후로 11월 20일에 치통을 호소하기 전까지<sup>78)</sup> 경종의 질병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즉위한 이후 3달에 한번 이상 질병으로 치료받았던 왕이 신임사화 이후 8개월간 질병이 없었던 것이다.

울화가 쌓여있다면 화를 밖으로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경종은 앞서 언급한 김일경의 상소 이후 대응, 윤지술에 대한 처벌, 목호룡의 고변 이후 대응 등에서 보여주듯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처형한 시기를 보냈건만 그 후 경종은 도리어 평소보다 더 건강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임사화가 경종의 억눌려있던 火氣를 발산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기질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경종이 신임사화를 얼마만큼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몸의 반응을 보면 경종이 어수룩하게 신하들의 당파싸움에 끌려 다니는 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왕세제의 대리청정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꾸준히 개진하고, 확실한 때에 기회와 명분

73) 임현주, 김석환, 이상룡, 정인철. op. cit.

74) 오갑균. op. cit.

75) 이종호. op. cit.

76) 『경종실록』 「경종 1년 10월 17일」

77) 김동윤, 김태우, 차웅석. op. cit.

78) 『승정원일기』 경종 2년 11월 20일, “自何日爲始有齒痛, 而未知此是素有之症乎? 或因外感而然乎? 喉間不平, 水刺全廢爲教”

을 붙잡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몸은 경증이 노론의 틀에서 벗어나 소론 신하들과 정치를 하고 싶었음을 보여주었다.

#### IV. 결론

1721년부터 1722년에 이르기까지 조선 정계에 큰 파바람이 불었다. 후대에 신임사화라 불리는 이 사건은, 노론과 소론의 사이에서 발생한 당쟁이었으며 결국 정계를 장악하지 못했던 소론의 승리로 끝이 난다. 그리고 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에게 있었던 ‘기이한 질병’이 화두가 된다. 왕의 입에서 처음 나왔고, 신하들과 왕세제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결국 소론이 정치적 명분을 획득하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던 병이다. 이 병은 경종의 정신과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기에 정사에 어려움을 주는 병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하들은 이 병을 ‘울화’로 인해 생긴 병으로 보았다.

경종은 어릴 적부터 화가 쌓일 상황에 부딪혔다. 아버지 숙종은 그의 어머니 장희빈을 죽였다. 세자로 있던 30년간 자기 주변은 자신과는 반대 세력인 노론으로 가득 차있었다. 끝내 아버지마저 그에게서 눈을 돌리고 대리청정을 하는 3년 동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청정을 지속해야만 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 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던 경종은 결과적으로 화를 스스로에게 쌓는, 울화의 기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신임사화를 통해서 그의 ‘기질’은 결국 그간 스스로에게 쌓았던 ‘화’였던 것이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과제번호 20120007481)

#### 참고문헌

1. 김경수. 『조선왕조사 전(傳)』. 파주 : 도서출판 수막새.

2007 : 1-420.  
 2. 김제방. 『조선왕조사』. 서울 : 도서출판 문학공원. 2011 : 1-876.  
 3. 박시백.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서울 :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 1-252.  
 4.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 (주)웅진닷컴. 2004 : 1-546.  
 5. 이상각. 『조선왕조실록』. 파주 : 도서출판 들녘. 2009 : 1-592.  
 6. 이종호. 『영조를 만든 경종의 그늘』. 파주 : (주)글향아리. 2009 : 1-271.  
 7.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김동윤, 김태우, 차용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 I」. 한국의사학회지. 2012 ; 25(1) : 11-22.  
 9.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논문. 2005.  
 10. 김종우, 현경철, 황의완. 「화병의 기원에 대한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 10(1) : 208-219.  
 11. 안태한, 장정아, 박은영, 정성식, 김진원, 서호석 외. 「폭식을 주소로 한 화병환자 치험1례」. 대한한의학회지. 2011 ; 32(5) : 139-46.  
 12. 오갑균. 「경종의 생애와 시정에 대한 일고찰」. 청주교육대학 논문집. 1977 ; 13 : 191-205.  
 13.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적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4. 이해웅. 「조선시대 현종, 숙종, 경종, 영조의 질병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한의학박사 학위논문. 2005.  
 15. 이희영, 김종우, 박종훈, 황의완. 「화병 진단 및 변증유형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5 ; 16(1) : 1-17.  
 16. 임현주, 김석환, 이상룡, 정인철. 「화병변증도구 개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8 ; 22(5) : 1071-7.  
 17. 홍성봉. 「조선조 역대왕의 수명과 그 사인」. 한국인구학회지. 1991 ; 14(1) : 35-46.  
 18.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 『동의보감』.  
 20. 『승정원일기』.  
 21. 『조선왕조실록』.